# 울릉도 주민은 배 운항여부를 미리 알고 있다

**임 현 주**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섬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상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배가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 특히, 울릉도는 기상상황이 자주 바뀌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 울릉도에서 대구까지 6개월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교육을 수료한 두 할머니가 계신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들에게 비법(?)을 물어봤다.

이야기할머니사업단은 여성 어르신이 매주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유아들에게 선현미담과 우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6개월 간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어야지만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대구까지 나와서 교육을 받고 무사히 수료까지 마쳐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분들이 계신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울릉도 주민인 윤봉숙, 이계순 이야기할머니다.

그동안에는 거리상의 문제로 울릉군에서는 선발하지 않았으나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선발을 진행했고, 그 결과 2명이 교육을 받게 됐다. 문제는 울릉도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장이 대구라는 것이다. 편도 4시간의 거리. 말이 4시간이지 비행기도 아니고, 배로 이동하는 길은 꽤 험난하다.

지난 2월과 11월에 울릉도로 출장을 가본 바 있는데 울릉도로 향하는 겨울바다는 제법 험했다. 배가 좌우로 요동치며 배의 한 면이 바다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지고, 파도가 배 전체를 뒤엎을 정도였다. 울릉도 주민들은 침착하게 바다를 견뎠으나 관광객들은 극심한 멀미로 매우 힘들어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 모습

그래도 이렇게나마 배가 뜰 때는 다행이다. 바다 사정이 좋지 않으면 며칠이고 배가 뜨지 않는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는 한 달에 10번 정도 운항이 통제된 바 있다. 배의 운항 여부는 출발 전날 오후나 돼서야 결정되어 승선예약자들에게 문자로 통보된다. 해수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파도가 거세져서 겨울에 접어들수록 바다 사정은 나빠지는데, 11월에는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어 한 차례 출장일정이 연기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울릉도 할머니들은 매달 정해진 교육 날짜에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다. 심지어 작년 운항정보를 보면 교육이 있기 4일 전까지 운항통제 된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다 사정을 미리 알고, 며칠 전부터 육지로 나와 있었다는 뜻이다.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그 궁금함을 못 참고 울릉도 주민인 이계순 할머니께 여쭤봤다.

"관광객들은 운항사에서 전날 알려줘야만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나오시는 건가요?"
"우리는 날씨 앱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쉬워요."

할머니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사람들은 보통 날씨 정보를 보면 비가 올 확률이나 온도 정도만 확인하는데, 할머니는 파도 높이까지 표시되는 기상청 날씨누리(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파고(波高)를 확인한다고 한다. 파도가 1~2m 정도면 바다가 잔잔해서 좋고, 2.5~3m면 배가 뜨기는 하지만 멀미가 심할 정도로 흔들리고, 3~4m면 배가 뜨지 않으니 이를 기준으로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가늠한다. 뉴스 끝자락에 나오는 일기예보에서는 날씨만 알려주고 바다 날씨는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은데, 바다날씨를 다루지 않아 섭섭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그래서 일정이 있을 때는 일주일 전부터 스스로가 바다날씨를 체크하며 배가 뜰지 안 뜰지를 가늠하다보니, 관광객들은 모르는 울릉주민만의 노하우가 절로 생긴 것이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니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하여 미리 일정을 조절하는 울릉주민들. 비단 울릉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섬 주민들, 바다 일을 업을 삼은 이들이면 모두가 스스로 바다사정을 가늠하여 상황을 판별하는 능력자일 것이다. 울릉도 주민의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니 이제는 배를 타기 전에 파고를 확인해야겠다.

**기상청 날씨누리**
(https://www.weather.go.kr)
▼
**바다**
▼
**오늘의 바다** 에서
풍향, 풍속과 함께 파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